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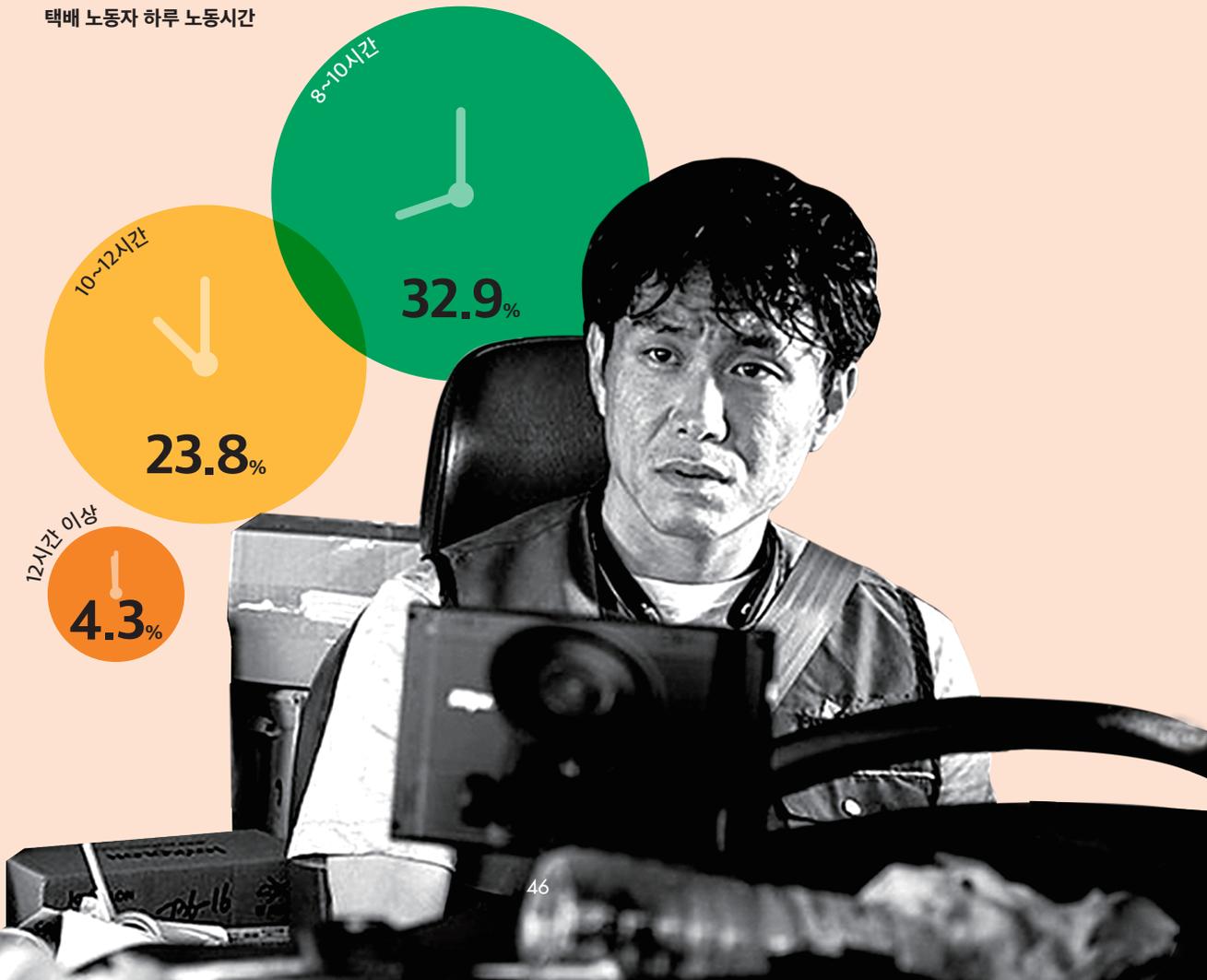
고된 노동 끝 빈자리는 모멸감 영화 <머니백> 속 택배기사의 과로와 감정노동

글 편집실

2018년 개봉한 영화 <머니백>은 7명의 등장인물이 하나의 돈 가방을 차지하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서로를 쫓는 추격전을 담고 있다. 문제의 돈 가방은 택배기사의 잘못된 배송에서 비롯된다. 킬러에게 배송될 총이 옆집 최준생에게 맡겨지고, 어머니 수술비 마련을 위해 월세 보증금까지 몽땅 털었던 최준생은

그 총으로 사채업자의 돈을 강탈하게 된다. 한마디로 돈 가방 하나를 두고 최준생, 경찰, 조폭, 정치인, 택배기사가 혈투를 벌이는 내용으로 영화는 액션 코미디 장르를 표방하고 있다. 개연성 없는 전개와 등장인물의 과장된 액션이 실소를 자아내지만, 택배기사가 부딪히는 순간들은 상당히 현실적이다.

택배 노동자 하루 노동시간



영화 속 택배기사에게 아파트 경비원은 “어이”라고 하면서 차를 빨리 빼라고 하고, 동네 건달은 “야. 택배”라고 부르며 막무가내로 물건 좀 배송해달라고 한다. 할당된 배송량을 채우기 위해 차량에서 간신히 끼니를 때우는 순간조차 ‘진상 고객’의 전화벨은 꾸준히 울린다. “물건 상하면 책임질 것이냐”는 재촉에 기껏 힘들게 계단을 올라 배송했더니만 “늦었다”며 간장 계장을 택배기사에게 사정없이 쏟아버린다.

택배 노동자가 짊어진 감정노동의 무게

몸을 구부려 물건을 내리고 신고를 반복하다 보면 온 몸은 땀으로 흠뻑 젖고, 허리를 숙이기도 힘들어진다. 문제는 이와 같은 고강도 노동을 법정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훌쩍 넘겨서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노동총중앙연구원이 택배산업본부 조합원 2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의 97.1%는 일주일에 6일가량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노동시간은 ‘8~10시간’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10~12시간(23.8%)’, ‘12시간 이상(4.3%)’ 등이었다.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휴식 여건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휴게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62.4%)을 차지했고, 명절 등 성수기에는 주 7일(15.2%), 10시간 이상 근무(57.2%)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심 없이 일하다 보니 요통·어깨통증 등 근골격계질환은 아주 흔한 문제다. 2020년에 들어서는 과로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을 마련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택배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

2021년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에는 육체적 요소보다 정신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울시 택배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 1/4 이상을 고객 상대로 보내며, 고객 상대로 인한 정신적 위험 정도는 0.666점으로 피로·통증 유발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적 동작 등 육체적 위험에 해당하는 각 항목보다 높았다. 고강도 육체노동을 하는 택배 노동자가 정신적 피로를 더 크게 느낀다니, 택배 노동자가 짊어진 감정노동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시 택배 노동자의 위험요소 노출 정도 (단위: 점)

구분		평점
육체적 위험	피로·통증 유발 자세	0.380
	중량물 취급	0.494
	지속적 기립 자세	0.385
	반복적 동작	0.467
정신적 위험	고객 상대	0.666
	화난 고객 상대	0.171

자료 : 2021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 척도 점수는 ‘전혀 노출 없음=0’, ‘거의 노출 없음=0.05’, ‘근무시간 1/4 노출=0.25’, ‘근무시간 2/4 노출=0.05’, ‘근무시간 대부분 노출=1’, ‘근무시간 3/4 노출=0.75’, ‘근무시간 대부분 노출=0.95’, ‘근무시간 내내 노출=1’

우리 사회는 노동자에게 친절한 차원을 넘어 고객의 비이성적 행동도 ‘웃으며’ 받아들이기를 강요할 때가 많다. 이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해지다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우울증·심혈관질환 등 여러 질병을 유발하게 하며 심지어 사망에 이르도록 만든다.

우리 사회가 스스로를, 서로를 노동자로서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때다. 🍷